

한국조경학회지의 당면 과제에 대한 고찰

김민수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정보학부 조경학전공

Discussion on Pending Tasks of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Kim, Min-So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Faculty of Information and Environmental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iscuss pending tasks of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KILA). Two subjects were discussed; one was the role of KILA as a supporter of landscape research, and the other was the role of KILA as a safeguard for its member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To support landscape research, several proposals were suggested. It i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for us to share some pages of our journal for essays which deal with current landscape issues, in order to introduce advanced overseas landscape trends or landscape techniques. For the field of landscape construction and landscape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column of technical notes which introduce new techniques of landscap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For the field of landscape design, a larger separate volume must be prepared with color printing. It is an efficient way to cooperate with other institutions that have the same member as KILA.

To safeguard KILA members, it is important to maintain our status as a registered journal of Korea Research Foundation and to publish an international journal. For prospective young researchers, publication of an english journal is under consultation with the Japanese Institut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the Chinese Institut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publication of an international landscape journal to be recorded in the ISI journal in the near future will promote the research abilities of KILA members.

Key Words :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KILA, Landscape, Editorial Board, Landscape Research

† **Corresponding author** : Min-Soo Kim,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Kyeongbuk 712-702, Korea. Tel. : 82-53-850-3187, E-mail : mskim@cu.ac.kr

I. 서론

한국조경학회지 제100호를 발간하게 되었다. 1972년 학회가 창립되어 2002년에 30주년을 맞이하였다면, 1973년 제1호 학회지가 발간된 이후 30년 만에 제100호를 발간하게 되었는데, 2003년은 학회지 발간 30주년이 되는 셈이다. 이 시점에서 지나온 학회지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는 한편,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하였다.

학회지의 편집과 발간은 투고-심사-수정-게재-발간의 순서를 기계적으로 되풀이 하면서 진행되다 보니 학회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깊은 성찰을 하지 못한 채 지나치기 쉽고, 논문의 심사나 편집방향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이러한 의견들을 한 데 모아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시도도 많지 않았다. 학회의 회원수가 많아지고 연구 분야가 다양해 질수록 많은 회원들의 의견 수렴은 점점 더 어려워지겠지만, 학회지 전체의 방향설정과 함께, 각 연구 분야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특집은 각 연구 분야별로 그동안 학회지에 게재되었던 논문들의 연구경향을 파악해 봄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학회지의 방향설정에 관한 논의는 당연히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깊이 있는 결론에 도달하여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본 특집은 각 연구회의 회장이나 해당분야 편집위원들의 논설을 통하여 이러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학회지 방향설정에 관한 그동안의 노력들을 살펴보면, 한국조경학회지 창간 10주년이 되던 해에 임승빈(1983)은 '학회지발표논문의 분류 및 검토'를 통하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성향을 분석하였으며, 같은 해 한국조경학회 편집부(1983)주최로 열린 '조경학회지 편집에 관한 좌담회'에서는 '조경학회지의 역할과 편집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학회 창립 30주년이 되던 해에 임승빈(2002)은 '조경학 연구 30년'이라는 논제 하에서 조경학회지 게재 논문의 연구분야별, 연도별 추세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김농오(2002)는 '국토경관의 변화와 한국조경학계의 발전과정'이라는 논제 하에서 한국조경학회지의 구성과 연구 분야에 대하여 연

도별로 분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분석·고찰을 통하여 한국조경학회지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취약점 및 보완방법에 대한 방향 제시는 이루어졌으나, 학회지가 학회 회원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방향 제시에 대한 내용은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조경학회의 정관에는 "본회는 조경분야의 발전을 위한 제반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회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목적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저간의 학회 회원들의 사정을 살펴보면 학회지가 조경분야의 발전을 위한 주요한 수단인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것과 함께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경학회지는 조경분야의 발전을 위한 충실한 기반 제공과 함께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자격과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는 당연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당면과제들을 살펴보는 한편, 현 시점에서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조경분야의 연구기반 제공을 위한 학회지의 과제

조경업의 분야에서 시공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고 설계분야가 그 다음이라고 할 때, 조경학회지에 발표되는 시공 및 설계에 관련된 논문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조경학회지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학술적인 연구가 곧바로 현장에 적용되기는 어렵고, 한편으로는 응용하여 사용하면 시공이나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 논문이 많다고는 하지만, 현업에서의 비중은 높고 관련분야의 논문수는 적게 나타나는 괴리 현상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1. 학회지 기사 구성상의 검토

김농오(2002)는 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심포지엄에서 학회지의 구성내용이 초기에는 논문, 논설, 세미나, 번역, 특집, 심포지엄, 신간소개, 서평 등으로 이루어졌으

나, 1990년 이후에는 논문과 기획논설 중심으로, 1997년 이후부터는 논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연도별 발간회수 및 발표 논문수를 살펴보면 1973년(논문 10편)에서 1985년(논문수 15편)까지는 연 2회, 1986(논문 16편)부터 1989년(논문 17편)까지는 연 3회, 1990년(논문 40편)부터 1998년(논문 76편)까지는 연 4회, 1999년(논문 73편), 2000년(논문 70편)부터는 연 6회 발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지의 구성이 점점 단순해지는 것은 논문의 발간회수와 발표 논문수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편집위원회의 업무량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과, 논문 이외의 기사에 지면을 할애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세미나, 심포지엄 자료는 별도의 책자로 발행되므로 학회지에 게재할 필요는 적어졌다고 할 수 있고, 신간소개와 서평을 학회지에 게재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전공분야의 서적은 독자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학회에서 적극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는데, 학회지를 발송할 때 서평을 곁들인 소개용 유인물을 동봉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회지 창간 10주년 기념 좌담회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논문 이외의 기획특집을 마련하여 게재하는 것과 고정 칼럼을 위해 지면을 할애하는 것은 학회지 편집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경학회지의 투고규정에는 투고대상으로 연구논문, 설계작품, 기타 기사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한국환경생태학회지는 논문, 속보, 논설로 하고 있고,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지는 연구논문, 기술사례, 특별기고 등의 관련기사로 하고 있다. 대한토목학회에서는 연구논문 이외에 기술노트, 통신 및 해설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신 및 해설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토의를 하고 원저자로부터 회신을 받은 내용을 일정한 양식에 맞추어 학회지에 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외국의 논문에서 자주 보는 것은 논문을 투고할 때, 관련분야 전문가의 평가내용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경학회지에서도 논문에 대한 토의나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고대상을 넓히고 학회지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기 위하여 논설, 기술노트, 특별기고 등에 학회지의 지면을 할애하는 것

은 심사와 평가를 거쳐 논문으로 게재하기 어려운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조경학이 나아가야 할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취약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배려

1) 시공·관리 분야

임승빈(1983)은 창간호에서 19호까지 10년간의 학회지 게재 논문을 분석한 결과 시공·관리분야의 연구가 저조하다고 하였으며, 학회 창립 30주년에 분석한 학회지 논문의 분야별 게재 추세에서도 시공·관리분야의 논문은 1983년 이후 불과 23편으로 나타나 여전히 저조하다고 하였다(임승빈, 2002). 조세환(2003)은 10년 단위로 분야별 논문수의 증감을 분석한 결과 1990년대 들어 시공·관리 분야의 논문이 양적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이는데, 이는 실무분야의 인력이 학계로 많이 진출하고, 실무분야 인력의 박사학위취득 등으로 연구능력이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조경학의 타 분야에 비해 여전히 논문 수는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논문수가 적은 것은 연구논문을 분야별로 구분할 때, 다소간의 견해차가 있을 수 있고, 관련분야의 연구자 수가 절대부족하다는 점도 그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논문의 특성상 현장에서 경험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들을 논문으로 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공·관리 분야에 필요한 논문은 연구범위를 좁혀야 되고, 많은 측정 장비를 동원하여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논문이 탄생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농학이나 공학 분야의 전공에 비교해 볼 때, 조경학 관련 연구자들은 그러한 장비나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현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그 대상이 광범위하여 현장에서 충족할만한 연구성과가 집적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분야와 달리 국가 연구기관이 없는 조경학 분야에서 단기간 내에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지는 연구논문 외에 기술사례, 특별기고 등을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토목학회에

서는 기술노트라는 형태로 게재하고 있으며, 기술노트는 기사의 맨 앞에 기술노트라고 명시하여 일반논문과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사례와 기술노트는 학회지에 게재하기에 격이 조금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한국원예학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학술발표대회에 발표된 논문을 투고하는 한국원예학회지와 발표를 거치지 않고도 투고할 수 있는 원예과학기술지로 구분하여 2종류의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기술노트, 기술사례와 같은 기사를 학회지에 게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점은 기사 내용이 객관적인 검증절차 없이 서술되며, 기술을 개발·시행하고 있는 측의 일방적인 견해가 서술되거나 장점만 지나치게 강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학회지가 가지는 대외적인 공신력을 감안할 때 이러한 기사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게재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술노트, 기술사례와 같은 기사를 학회지에 게재할 때에는 학회에서 지정한 관련 전문가가 해당 기사를 평가하고 그 내용이나 견해를 기사 뒤에 첨부함으로써 독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준거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다른 매체에 게재된 기사보다 학회지에 게재된 기사의 신뢰성이 높아지므로 많은 사람들이 학회지의 기사를 이용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학회지의 기사 구성에 있어서 취약한 시공·관리 분야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노트와 같은 형식으로 외국에서 개발된 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되는 기술을 학회지를 통하여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연환경이 다른 곳의 기술인만큼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곁들여 소개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이러한 방식의 기술소개는 시공·관리 분야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설계분야

설계 작품을 조경학회지에 게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학회지 창간 10주년에 편집부 주최의 '조경학회지 편집에 관한 좌담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으나, 1998년에 투고규정이 개정되고, 1999년에 조경작품 평가기준이 제정됨으로써 설계 작품이 조경학회지에 게재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그동안 조경학회

지에 설계분야의 논문이 적었던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형식상의 문제만을 언급해 보기로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인용문헌이 전무한 설계 작품이 많다는 것이다. 학술진흥재단에서 학술지 평가를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작업은 인용지수를 계산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인데, 앞으로 있을 학술지 평가에서는 인용지수를 주요한 변수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평가를 감안할 때 인용문헌이 적은 설계작품은 조경학회지의 평가에 그만큼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설계작품이 다른 논문에 인용되기 어렵다는 점도 학회지 평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학회지에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게재될 수 있는 설계작품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의 단체에서 수상한 작품으로 수상기관의 폭이 상당히 넓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과, 수상의 범위도 가작, 3등, 동상까지로 하여 동일한 설계공모전에서 3개 이상의 작품이 무심사 게재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당선작은 투고되지 않았는데 가작이 게재되는 경우나 동일한 설계공모전에 출품되어 수상한 작품이 모두 게재되었을 경우를 상정해 보면, 이러한 평가기준은 다소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위원회에서 무심사 대상이 되는 작품을 판정을 할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조경이 주가 된 설계 작품인가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설계한 작품을 참가자중 특정인의 명의로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아직은 투고된 설계작품이 많지 않지만 설계작품의 투고가 많아지게 되면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설계작품의 게재는 심사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게재되는 지면에도 문제가 있다. 설계작품이 실리는 잡지의 경우는 대부분 잡지의 지면이 넓고, 색도 인쇄가 잘 되는 지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하여 일반 논문이 실리는 학회지에 흑백으로 작품을 게재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일본 조경학회의 경우는 작품집을 1년에 1회 정도 따로 발행하고 있는데, 한국 조경학회의 경우는 작품집으로 발행하였을 경우 업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하는 문제 때문에 투고자

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고, 작품집으로 따로 발간할 정도의 분량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에 대비하여 학회지는 연 6회 이상 발행하여야 하는데, 설계작품을 제외하면 논문수가 모자라게 되므로 지금의 형편으로는 설계작품집을 따로 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계작품의 게재는 작품 게재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회원이나 작품을 두고 하였거나 앞으로 두고하려고 하는 회원 모두에게 불만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조경설계분야의 발전과 설계분야의 발전을 통한 조경학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동안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3.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사 학회와의 협조

여기에서 유사 학회라고 하는 것은 조경학회와 학회 회원을 공유하는 학회를 지칭한다. 바꾸어 말하면 조경학회 회원의 일부가 주축이 되어 창립한 학회를 말한다. 이러한 유사 학회의 창립은 조경학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신생 학회의 창립 2~3년 이후에는 조경학회에서 관련 분야의 논문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한국정원학회는 1980년에 창립되었는데 1980년 이전 8년간 조경학회지의 조경사 관련 논문이 5편이었던데 비하여 1980년 이후 8년 동안은 6편, 1988 이후의 8년 동안은 36편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환경생태학회는 1987년에 창립되었는데 1987년 이전에 조경학회지에 발표된 생태학관련 논문이 15년 동안 4편이었던데 비하여 환경생태학회 창립 후 15년 동안에는 조경학회지에 33편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김농오, 2002: 137).

유사학회의 창립이후 관련 분야의 논문 편수가 늘어난 것은 조경학회지의 발간 회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게재논문의 총량이 늘어남에 따른 것도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신생학회가 창립되어도 관련 회원들이 조경학회를 빠져 나간 것이 아니고, 양 학회의 회원으로 활동을 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학문으로서의 특성을 지니는 조경학의 경우는 신생학회의 창립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으며, 신생학회의 창립은 관

련 분야 회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졌거나 사회적인 수요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경학 분야의 사정이 이리하다 보니, 회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학회를 운영하는 측에서의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다. 1년에 2번 참석하던 전공 관련 학회에 4번 내지는 6번 참석하여야 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회원수를 가진 학회도 학술대회 준비나 학회지 발간을 하여야 하므로 비용부담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조경학관련 유사학회가 많다는 현상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조경학과 근접해 있는 관련분야의 인재들을 조경 분야로 끌어들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학회지는 각 학회별로 발간한다 하더라도 공동의 관심사가 되는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특집을 낸다거나,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공동주최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적어도 날짜가 중복되면 곤란한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하게 되면 많은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다.

임승빈(2002)은 조경관련학회로 22개 학회를 예시하였는데, 관련학회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조경학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경학 관련 연구는 조경업역에 속하는 분야뿐만이 아니라 관련 학회의 분야인 임학, 원예학, 건축, 토목, 도시설계, 국토 및 도시계획분야에서도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조경학 관련 연구는 건축, 토목, 임학과 같은 관련학회에서 적극적으로 발표되어야 하며, 관련학회와의 활발한 공동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I. 학회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학회지의 과제

1. 학술지 계속평가에 대비한 대비

2002년은 한국조경학회 창립 30주년이 되던 해였고, 한국조경학회지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이라고 한다)의 등재학술지로 평가를 받은 해로서 조경학회에 있어서는 뜻 깊은 한해였다고 할 수 있다. 학진의 등재 학술지는 3년마다 평가를 받아 등재학술지의 지위 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학회지의 편집도 앞으로 있을 계속평가에 대비하여야 하며, 편집방향의 개선도 이러한 평가를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학진의 학술지 평가 방법 및 기준

학진의 학술지 평가 방법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3단계로 진행되며, 평가단계별 평가항목 및 배점은 표 2에, 게재율에 따른 평가기준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http://www.krf.or.kr/nkrf/index.php>)

2) 학진의 학술지 평가에 대비한 유의사항

(1) 학술지 체계평가에 대한 대비

가) 편집위원의 연구업적

표 2에서와 같이 편집위원의 연구실적에 대한 배점은 3점인데, 평가에 대비한 준비의 어려움은 연구업적이 많은 회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 평가에서는 가장 좋은 평가점수를 받았지만 앞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연구업적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정시발행과 게재율

학회지의 정시발행은 하루단 늦어도 1점이 감점되는 만큼 발행기일을 꼭 지켜야 하는데, 심사를 통과한 논문이 1회 발행분 이상 비축되어 있어야 별 어려움 없이 정시발행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이는 게재율이 낮아지면 논문의 비축분이 적어지고, 게재율이 높아지면 게재율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상호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1년도의 게재율은 63.6%로 평가점수로는 6점 정도에 해당된다. 게재율은 지난 평가에서 평가점수가 가장 낮았던 항목이기는 하나 논문심사가 엄격해지면 투고논문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더 이상 게재율을 낮추기는

표 2. 평가단계별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학술지 체계평가	1. 심사절차	2	
	2. 논문 1편당 심사위원 수	3	
	3. 편집위원의 연구실적	3	
	4. 논문 게재율	9	
	5. 학술지 배포의 국제성	2	
	6. 등재하고 있는 색인이나 DB의 명칭 CYBER 출판여부	3	
	7. ISSN 부여	1	
	8. 정시 발행	5	
	9. 연간 학술지 발간횟수	4	
	10. 논문 투고자의 전국성 및 국제성	4	
	11. 학술지 역사	2	
	12. 기관규모 (회원수 또는 전임연구원수)	2	
소계	12개 항목	40	
학술지 내용평가	분과위원 평가	1.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의 구체성과 엄정성	4
		2. 편집위원 선정기준과 절차의 구체성 및 엄정성	4
		3. 편집위원의 전문성 및 대외활동	4
		4. 수정제외의 상세성과 구체성	4
		5. 투고 규정의 상세함과 구체성	4
	소계	5개 항목	20
	주제 전문가 평가	1. 게재 논문의 질 및 독창성	20
		2. 학술지의 전문성	12
		3. 인쇄의 질 및 지면배정의 효율성	3
		4. 논문초록의 질	5
소계	4개 항목	40	

표 1. 학진의 학술지 평가방법

평 가 방 법	평가문항수	배점	비고	
학술지 체계평가	12	40	※ 학술지 체계평가항목(색인이나 DB명칭, 발간 횟수) 및 분과위원평가, 주제전문가평가는 인문사회, 자연과학 분야별로 평가 실시.	
학술지 내용평가	분과위원 평가	5		20
	주제전문가 평가	4		40
계	21	100		

표 3. 게재율에 따른 평가기준

게재율	투고건수		
	50건 미만	50~100건 미만	100건 이상
100% 이상	0점	0점	0점
90% ~ 99%	1점	1점	1점
80% ~ 89%	2점	2점	3점
70% ~ 79%	3점	4점	5점
60% ~ 69%	4점	6점	7점
50% ~ 59%	7점	7점	8점
40% ~ 49%	8점	8점	9점
40% 이하	9점	9점	9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른 평가 항목에서 점수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논문 투고자의 전국성 및 국제성

지난 평가에서 평가점수가 가장 낮았던 항목 중 하나로는 논문 투고자의 국제성을 들 수 있는데, 1회에 10편의 논문이 게재된다면 그 중 1편 정도는 외국에 소재하는 연구기관 소속인 자의 논문이 게재되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학회의 투고규정을 개정하여 투고자 전원이 외국의 연구기관 소속인 경우는 투고료와 심사료를 면제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규정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유학 중인 회원의 투고가 늘어나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홍보하는 방안과 외국 연구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학회지의 국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학술지 내용평가에 대한 대비

학술지 내용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항목이 많고, 공개된 평가기준이 없어 대비책을 세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난 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다면 논문의 접수에서 게재까지에 소요된 기간이 짧았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논문의 심사와 수정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외국의 저명 학술지에 투고하면 게재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바른 지적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고된 논문의 수가 많아야 하고,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수정에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국제 영문학술지의 발간을 위한 과제

국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연구업적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서, 한국조경학회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회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과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국제 영문학술지를 발간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학술지 발간에 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과 영문학술지가 ISI(Information Sciences Institute)에 등재되어야 하므로 등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제 영문학술지를 발간하고자 함은 연구비를 수여하는 정부의 학술단체나

표 4. 2001년도 학회지 투고논문의 게재율

2001년도 학회지의 권 호수	투고편수	게재불가	이월편수	중단편수	게재편수	게재율
제28권 제6호 (통권 83호)	13	2	0	1	10	76.9
제29권 제1호 (통권 84호)	23	7	0	0	16	69.5
제29권 제2호 (통권 85호)	18	6	0	2	10	66.7
제29권 제3호 (통권 86호)	20	7	1	0	12	65.0
제29권 제4호 (통권 87호)	20	7	0	1	12	62.5
제29권 제5호 (통권 88호)	16	6	0	0	10	63.6
계	110	35	1	4	70	63.6

기관에서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업적을 요구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도 승진이나 연봉제에 연계되는 연구업적 평가에 있어 국제적인 연구업적에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절박한 것은 많은 대학에서 신입교수를 채용과 계약약을 할 때, 국제적인 연구업적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적인 연구업적이 많은 연구자는 모집분야와 상관없이 채용하는 경우도 있어, 국제 영문학술지의 발간은 조경학 후속세대의 존속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

1) 국제 영문학술지 발간과 한국조경학회 내부의 문제
ISI 등재를 목표로 한 국제 영문학술지 발간은 학술지의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회원들의 연구분야가 다양한 조경학회의 경우는 회원 모두를 아우르는 성격의 국제 영문학술지를 만들기 어려운 점이 있고, 연구 분야가 다양한 조경학회의 논문은 일정한 영문양식에 맞추어 내용만을 조금 수정하여 작성되는 타학회의 논문에 비하여 일정한 양식이 없으므로 영문으로 작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번역을 의뢰하기도, 원어민에 의한 영문 교정을 받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영문학술지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조경학의 학문적인 특성상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ASLA(American Society Landscape Architect)에서 발행하는 Landscape Architecture가 A & HCI(Arts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ASLA의 Landscape Architecture와 같은 형태의 영문학술지를 만드는 안이 검토된 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제학술지에 논문발표를 희망하거나 영문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연구자는 SCI에 등재될 수 있는 성격의 논문집에 투고하고자 하는 성향이 많아서 영문학술지를 발간한다하더라도 학술지의 성격 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 국제 영문학술지 발간과 국제적인 협력

국제 영문학술지의 발간은 한국조경학회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당연히 국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은 3가지 정도로

제 1안은 매년 시행되고 있는 한·중·일 심포지엄을 발전시켜, 국제 영문학술지를 발간하는 안인데, 일본의 조원학회는 다소 소극적인 편이고, 중국은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과 투고되는 논문의 내용에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이 안은 한국조경학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인력을 투입하고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성사가 될 수 있는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안은 호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ure)동부지역 회의는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문학술지를 발행하도록 교섭하는 안인데 호주나 뉴질랜드의 조경가들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임하는가에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성사가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 3안은 일본의 녹화공학회(녹화)가 중심이 되고, 일본 응용생태공학회, 일본 조원학회,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 등이 참여하기로 한 국제 영문학술지 발간계획에 한국조경학회가 참여하는 안이다. SCI 등재를 목표로 발간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었고, 성사 가능성이 높은 안이라 할 수 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투고자격을 가지는 참여회원 1인당의 연회비 부담금이 다소 높게 책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제영문학술지의 발간은 위에서 토로한 바와 같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인접국가 중국의 경제성장속도가 빠르고 개발도상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중·일이 중심이 된 국제 영문학술지의 발간은 본래의 목적 외에도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한국의 조경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고는 조경학회지가 당면한 과제로서 조경분야의 발전을 위한 제반 연구기반 제공의 확충과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제고라는 2가지 과제를 선정하였다. 연구기반 제공의 확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학회지의 구성내용, 취약분야에 대한 보완방법, 관련학회와 관계설정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회원들의 권익보호 역할을 위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계속평가와 국제 영문학술지 발간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

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검토결과 얻어진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학회지의 구성상 연구논문 외에 기획논설, 기술노트, 특집 등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여, 조경학 전체에 대한 방향을 잡거나, 심사를 통하여 게재되기 어려운 분야의 연구내용이나 기술이 소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게재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토의·해설한 내용을 게재하는 방안이나, 투고되는 논문에 관련 전문가의 평가내용을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연구논문의 작성이 어려운 시공·관리 분야에서는 기술노트와 같은 형식으로 연구나 기술내용을 소개하기로 하되, 해당분야 전문가의 평가나 검토한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여 다른 매체와 기사내용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에서 개발된 기술 혹은 도입되는 기술도 평가를 곁들이는 형식으로 소개될 수 있도록 학회지 기사의 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4. 설계작품을 위한 별도의 작품집 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설계작품의 투고수가 많아질 경우에 대비하여, 무심사로 게재될 수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5. 회원을 공유하는 유사학회와 협조하여 학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집의 공동출간 등으로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경관

련 학회와 공동연구나 학술논문의 교차발표 등으로 공동관심사에 대한 연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계속평가에 대비하여 회원들의 연구업적에 대한 정보입수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조경학회지의 외국인 투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논문의 인용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논문 투고수를 늘일 수 있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7. 국제 영문학술지 발간하는 방안과 이 학술지가 ISI에 등재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조경학 후속세대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회원들의 권익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문헌

1. 김봉오(2002) 국토경관의 변화와 한국조경학계의 발전과정. 한국조경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집, pp. 119-137.
2. 임승빈(1983) 학술지 발표논문의 분류 및 검토. 한국조경학회지 11(2):15-27.
3. 임승빈(2002) 조경학 연구 30년. 한국조경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집, pp. 23-31.
4. 조세환(2003) 한국조경학회지 게재논문 조경소재·시공 분야의 연구경향. 한국조경학회지 31(5):(인쇄중).
5. 한국조경학회 편집부(1983) 조경학회 편집에 관한 좌담회. 한국조경학회지 11(2):29-33.
6. <http://www.koserrt.or.kr/05-3.htm>
7. <http://www.krf.or.kr/nkrf/index.php>
8. http://www.ksce.or.kr/kor/thesis/system_01.asp
9. <http://www.thomsonisi.com/cgi-bin/jrnlist/jresults.cgi?PC=H&Word=landscape>